

보도 희망 일시	제한없음(즉시)
문의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오민아 선임연구원 전화: 880-4986, 이메일: minawizz@snu.ac.kr

배포일: 2025.4.1.(화)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대학 기관 최초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받아 ESG 경영과 순환경제 선도

-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원장 강문성 교수)은 지난 3월 7일(금) 대학 기관 최초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NICEM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포함한 총 6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중 하나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는 2016년 도입된 적극행정 제도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재활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기물이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면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토양과 지하수 등에 접촉하여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활용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며, 다른 하나는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다. '매체접촉형' 평가는 높은 수준의 기술 검토와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어 진입 장벽이 높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승인된 49건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중 매체접촉형은 2건에 불과하다.

- NICEM은 환경위해성·자원순환센터(센터장 문소영) 주관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NICEM은 토양위해성평가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에도 강력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NICEM은 18명의 박사를 포함한 90여 명의 전임 인력과 조사·분석 관련 인증 및 첨단 분석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 사전 진단부터 신청서 작성, 현장 평가, 평가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NICEM은 1992년 설립 이후 교육부의 전국단위공동기기원으로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국가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KOLAS), 국가공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KOLAS)으로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토양기술위원회(ISO/TC190) 간사기관 및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서 국제표준 제정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NICEM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은 환경부의 순환경제 전환 및 저탄소 경제 실현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NICEM을 통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경영을 실현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